9

張平安協

The Korea Baily News. Scoul, Korea, Saturday, Nov. 7th, 1925. THE UNMANNERY TIGE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The priest, very much surprised and indignant, protested against such vile ingratitude. To say the least, it was very bad manners and entirely against the law of the mountains, and he appealed to a big tree to decide between them.

The spirit in the tree spoke through the rustling leaves and declared that the man should go free and that the tiger was both ungrateful and unmannerly. Old Mountain Uncle was not satisfied yet,

especially as the priest was unusually fat and would make a very good dinner. However, he allowed the man to appeal once more and this time to a big rock. "The man is certainly right venerable

Mountain Uncle, and you are wholly wrong," said the spirit in the rock. "Your master, the Mountain Spirit, who rides on the green bull and the die-bold horse to punish his enemies, will certainly chastise you if you devour this priest. You will be no fit messenger of the Mountain Lord if you are so ungrateful as to eat the man who saved you from starvation or death in the trap. It is shockingly bad manners even to think of such a thing." The tiger felt ashamed, but his eyes still

glared with hunger; so, to be sure of raving his own skin, the priest proposed to make the toad a judge. The tiger agreed.

But the toad, with his gold-rimmed eyes, looked very wise, and instead of answering quickly, as the tree and rock did, deliberated a long time. The priest's heart sank while the tiger moved his jaws as if anticipating his feast. He felt sure that Old Speckled Back would decide in his favor.

호령이 이야기 (三)

【義州】 昨年九月早刊今月分以一年号안の義州郡の五石の 丘吐價格の無慮五萬六百八十七圓の司立遂出滅五萬

뱀뱀

飲面長産業視察が今日間の職業十七個面の面長一同高職郡十七個面の面長一同半日間の職定の三四群地方案状態差視察が中口同郡守案状態差視察が中口同郡守案状態差視察が中口の高験差が今全州、美江、水原、京城が登視察が今日、高融)

承。

宣無

戦勢不振。豆

The Chasun Ilha. (The Kacen Daily News) Seau.

年一副官『今」氏』を推薦 「日愛」「玄奘三陸軍委員第一副官の『今上世、今 「子三利」将軍逝去後空席の日8の『中国軍委員의候』「玄奘三陸軍委員第一副官の『今トー世、今」「東の『早日は開薦日8代中日報道日 シ中選挙に数

의削除又に削破되び合の三後 加計が指目習む並新規事業を 職等の大職省議의結果大斧鉞 (東京電) 明十五年度内職

石展覧・贈岩浦公立曾の分に去多日の見前の対に去多日の見前の対にまる日の見前のでは一時のに即父兄會同午中はいこ間で対し、同様のには、一様のは、一様のは、一様のは、一様のは、一様のは、一様のは、一様のは、

差別하

고 가지라 아니힐수업다 실인되고라도함의 이 하기를하였으 하드몸이 세상에나온 그러 하필그것은 웬일이 하고 만홀리다가 되고 있으 웬일이 떠뜨 기 이 무슨 이 사람이 되는 그것은 이 사람이 나온 이 무슨 이 사람이 되는 그것도 이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이 되는 그것도 이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이 나는 그것도 이 사람이 되었다.

農會技手의失態

교 라는식의면짜비리 (水原郡水 전 리는식수의면짜비리 (水原郡水 전 리는식구)의일보미인이이 기가 강간을당하여 출생한아이가 보장기 소리에 가당의 신리하여 동병원에서 산구(山口)과 오차는피고의대리인 전 신구(山口)과 출생하게되었다는 아이를 배당 출생하게 보고되었다는 학생수의 모친당하고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하고 보고되었다는 학생수의 모친당하고 보고되었다는 학생수의 모친당하고 보고되었다는 이 출생하면 서로바다 기본하고 한다면 사로바다 기본하고 한다면 사로바다 기본하고 한다면 기본하고 한다면 기본 한다 어가는동성(東京)사는잡화상 다가는동성(東京)사는잡화상 다가 나다가 처음에 못이기여 무이기여 무이기여 무이기여 무이기여 무리 한다니다가 처음에 무이기여 무리 보다 보다 하는데 이술(西班)과 는것을 5통이 점한 다는데 그는 십월일일 건축형 뜻 하는데 그는 십월일일 건축형 뜻 한 학자 나는데 그는 십월일일 건축형 뜻 한 학자 라는지 가 작고 그런 가는 첫 대한 대학자 사용 (제한 대학자 부분 당이라더라(나우엔단보) 백 사용 (제한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라(나우엔단보) 백 사용 (제한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라(나우엔단보) 백 사용 (제한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라(나우엔단보) 백 사용 (제한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 대학자 부분 (제한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 대학자 부분 당이라면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학자 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제한 대학자 (제한 대학자 (제한 대학자 학자 (제한 대학자 (제한 대학 巡查殺害後强盗 心生者를上五 口本各地の 전화성성기명이 는속에서 명현(山形縣) 國館夕慶) 디방에는으림방부터 평변(山形縣) 國館夕慶) 디방에는으림방부터 환분이와서 통화가량이나 차명 らとないの いいいとなか 일본대판 주실구상주실 (大阪 변류삼당 (渡邊隆三郎)의 작년 오월정부터 삼권제작소(泰田製作所)라는간판으로 『메리얏스』와 양말귀계(機械) 판매를신 勞農露國 詐欺。日人 虚偽廣告呈 피해

자오백여명

원무시장에 서종이 명렬히불고 이 주 한 등이로 교원에 가중이 명렬히불고 나무가리와도 곳에서 불이일이 보장으로 큰원에는 이르지만 되는 이르지만 나무가리엽히비 교(肥村)를 만들기 위하야 생리 비를 들길러 노랫도 것이 음기 이 나무가리엽히비 기에 불을 길러 노랫도 기위하야 생리 이르지만 平康火災 지난으일으로

成川에初雲 성원(成川)에 자명 성원(成川)에

『업체요 병을쓰다가보니外업 가게 집어갓나하구말습이 테이지안한 己아纠例分

◆集

會◆

서 때투呎을내려다보니 가 기 이때 내

스나 소바조와 근처자

人夫一名慘死 路工事中 등하고잇는한의성(韓元編)(교)이는 지난산일에 수도(建進)을 보고 그다리미레쉬 지목(支木)으 에다로 나라인자의 한의성이는 지산할 여가도입시 장혹하였여 주사하였다리라(영등)

資投作種文

格稿品員藝

奇吟 随宣創作으로 各種投稿無制限制

回辫文藝作品懸賞募集

表月から雑む州少等一對入同二 け로誌書 7 年 7 等 む選時十 1 円 州 繪籍 3 少 7 2 賞者 1 日 十 些 書 4 適 女 お 로 品 1 ? 發 二 少 等 只 當 의 야 五 은 1 1

朝鮮及消刑暴迫計の十八島以下少年少女

ゆ十二月十日外八奉天十間男朝鮮日報支

氏名、年齡、及在醫學校名群紀計

問任美作の太親及『ひぎり』 酸表指数な

大雪

い村中州田省

영준이는 곳나가서 한별시 다입고 나갈까 다가인제야 한달남짓하게 버른도이 겨우 시십여원이 될까말까한데 뜨 오을산다면 그래서야 당베스 길도안떠린질것이요 어제점을 길봇자서 몸도곤할듯하야 오늘

로 한지(建樂建)일바의주민들의 이번에설치된 핵대공기 주식회 여본에설치된 핵대공기 주식회 행鮮工事)이바한 수도라수(원 차)의기회를 필요하여 수도부 설문으로 이러보는(仁川府)에교철중인모양 인데 부설비 약이만원인단보상 환에의한면(面)차인급으로쐿이 것을중당할게 확이라되라

왕복자 서 목도프힐롯하야 오늘 은쉬이기로하였다 라이되두고보자! 그것증가위 자하고 실호데 하지기야하겠니 나 가의 인력기방으로 나가라고집 나이 인력기방으로 나가라고집 바탕으로나깃다

中國 (國際第五十五號)자동차기 명당 이 의로 일에 하당 이 오십 의로 일에 하당 데 오십 의로 길이쉬를 가하다가 오면수의부주 의로 길에쉬를 나이이를 세명이 나치었는데최순정(崔淳敏)(七) 은 가급과달을 탐시상하야 당디 관계의원(關西醫院)에쉬용급치 모급을하는 중이네 생명에는 관계 기업겠다더라(양달)

勞働夜學新設

주선한 발과로

우 웃 서 끄 라 십

건

문리조삼씨의

東萊釜谷에

青陽에火災 北面签谷里)에 서는 문고호의원(文基浩李元柱財展元) 수조희원(文基浩李元柱財展元) 수조희원(文基浩李元柱財展元) 하고 흥월조순에 모동야하(勞勵 夜寧) 흥월립하여 일이산하급으로나누당벌서부러교수하는대남 주용면 롱지리(陽德郡九龍面龍 溪里)의생(醫生) 김사봉 (金仕 1 교를 무료도하여줄였아니라 사 마진단치(死亡診斷書)등도도을 박지인한 하여줌으로 부끈인사 는그의 미덕을[장송키 마지안는 다더라(양덕)

지 그 이러한 궁의를하아보면서 교 이 무엇하야 다른째보다느지막 이 무엇하야 다른째보다느지막 이 무엇하야 다른째보다느지막 를보라갓나?하고 모을 여러보다느지막 들 양권히치위노했다 들아주 가버렸나?되는 일종 의 설심한생각이 삼간들어스나

교 등검인머리채를 지시 및 나는 지당기로 쌍고를 내어 질리동인 무건이 사리 사리 가는 지 그 아이 는단자 처럼 집어 노흔 된지 가인 되어 있다

철의마음이 가난하오며 밋붐 입사음을 김히김의 슬취하의 이로 대신하오니 철의덕신듯 이로 대신하오니 철의덕신듯 이다다